재외동포청 **보도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11.26.(목) 16:30

‘94세 어르신부터 3대 가족까지’ 사할린동포 85명 영주귀국...내년에 규모 더 늘린다

-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85명, 26일 동해항 도착...고국에서 새로운 삶 시작
- 내년부터 사할린동포 사망 후에도 자녀 등 영주귀국 신청 가능...지원 규모 600명으로 확대 추진
- 1992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 선정자 234명 포함 총 6,074명 영주 귀국 지원

【관련 국정과제】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던 동포와 그 가족 85명이 26일 강원도 동해항을 통해 영주귀국했다. 이번 귀국자에는 94세 어르신과 할머니·어머니·손자로 이어지는 3대 가족도 포함됐다.

○ 이들은 올해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234명 가운데 첫 귀국자들로, 사할린을 출발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에 오른 뒤 26일 오후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.

○ 최고령 귀국자는 염찬오(94세) 어르신이다. “9살에 가족들과 함께 사할린에 왔다, 남편은 40년전에 사할린 땅에 묻었고 곁에 있던 동무들도 모두 한국에 돌아가 이제 나 하나 남았다.”며, “늦었지만 한국에 있는 손자, 손녀와 친척들을 만나서 여생을 보내게 되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다”라고 말했다.

○ 사할린동포 2세 배올가씨도 아들 배다미르 군과 함께 귀국해 3대가 고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. 배다미르 군은 이번 귀국자 가운데 최연소자로 “가족들과 다 함께 한국에 가게 되어 행복하다. 한국에 가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”고 말했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환영식을 열고 귀국 동포들을 맞이했다.

ㅇ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과 허정구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, 김 차장은 하선장에서 최고령 귀국자인 염찬오 어르신을 직접 맞이하고 행사장까지 동행했다.

ㅇ 환영식을 마친 동포들은 전국 각지의 정착 예정지로 이동해 국내 생활을 시작한다.

□ 내년부터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, 자녀의 배우자도 영주귀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.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지원 규모도 6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
ㅇ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“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의 아픔을 보듬는 일”이라며 “모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.

ㅇ 법무부,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계약, 국적판정 신청, 건강검진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.

ㅇ 허정구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지원본부장은 “대한적십자사는 귀국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강검진, 국적 취득, 주거 및 행정지원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”며, “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하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며,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은 1992년 시작됐다. 올해 선정된 23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,074명의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거나 귀국을 앞두고 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 장	이규현	032-585-3172
		담당자	주무관	서현규	032-585-3173
	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지원본부	책임자	팀 장	김영란	02-3705-3790
		담당자	대 리	오나현	02-3705-3795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